

#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봄벌처럼 맑고 밝은 웃음을 머금고**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공통과목** ..... 1~12 쪽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13~16 쪽
  - 언어와 매체 ..... 17~20 쪽

※ 시험이 시작될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디지털 읽기는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화면에 제시되는 텍스트를 읽는 활동이다. 인쇄 매체 기반의 읽기가 주로 문자 언어로 구성된 텍스트를 선형적으로 따라가는 것과 달리, 디지털 읽기는 문자 외에도 영상, 음향 등 복합 양식 정보가 결합된 형태를 띤다. 또한 디지털 텍스트는 인터넷 망을 통해 방대한 정보와 연결되어 있어, 독자는 인쇄물 읽기와는 다른 인지적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인쇄물을 읽을 때 독자의 초점은 대체로 주어진 텍스트 자체에 고정된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의 텍스트는 대개 ㉠ 하이퍼텍스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하이퍼텍스트는 링크를 통해 서로 다른 정보가 연결된 비선형적 구조를 갖는데, 이는 독자가 한 문서를 읽는 도중에도 다른 맥락의 텍스트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구조는 여러 정보를 연결하며 읽는 다문서 읽기를 수월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독자가 읽기의 흐름을 스스로 통제해야 하는 노력을 요구한다.

또한, 디지털 읽기에서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는 방식이 자주 활용된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 F형 읽기 패턴이다. 이는 시선이 웹 페이지 상단에서는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점차 단어나 문장을 건너뛰면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며 읽는 눈동자의 움직임 패턴이다. 이러한 패턴은 방대한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만을 신속하게 선별하려는 효율성 중심의 읽기 전략이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읽기의 특성은 독해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텍스트라도 스크롤 방식으로 읽을 경우 인쇄물에 비해 읽기 속도는 빨라지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하이퍼텍스트 구조에서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과 복합 양식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과정은 독자에게 과도한 인지 부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활동이 동시에 가능한 멀티태스킹 환경은 주의력을 분산시켜 깊이 있는 사고를 방해한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의 독자는 독서 목적을 잃지 않도록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인쇄 매체 기반의 읽기는 독자에게 과도한 인지적 부하를 유발한다.
- ② 디지털 환경의 독자는 독서 목적을 점검할 필요가 없다.
- ③ 인쇄 매체 기반의 읽기를 수행할 때 다문서 읽기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 ④ 디지털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텍스트를 선형적으로 따라가며 읽는다.
- ⑤ F형 읽기 패턴이 적용되면 독해의 이해도를 낮출 수 있다.

2.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링크를 통해 다양한 내용의 정보가 결합된 구조이다.
- ② ㉠은 다문서 읽기를 통해 독자가 서로 다른 맥락의 텍스트를 연결하며 읽도록 만든다.
- ③ ㉠은 독자의 초점이 주어진 텍스트에 고정되도록 만든다.
- ④ ㉡은 독자가 읽을 내용을 선택함에 따라 눈동자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패턴을 말한다.
- ⑤ ㉡은 정보가 많은 디지털 환경의 텍스트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빠르게 훑을 수 있도록 돕는다.

3. 다음은 학생이 신문과 인터넷 기사를 읽은 경험을 작성한 글의 일부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사회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종이 신문과 인터넷 기사를 찾아 읽어보았다.

신문을 읽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출생아 수 현황이 숫자로 적혀 있어서 ㉢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차근차근 글을 따라가보니 원인을 규명하는 내용에 ㉣ 집중하여 읽을 수 있었다.

인터넷 기사를 읽을 때에는 출생아 수 통계의 추이가 이미지와 영상으로 나타나서 ㉤ 핵심적인 내용을 스크롤하며 빠르게 파악하기는 쉬웠지만, 내용을 너무 많이 생략한 탓에 ㉣ 이해가 잘 되지 않아 혼란스러웠다. 평소 관심이 있던 과학 기사가 눈에 띄어 기사를 읽던 도중 ㉢ 다른 기사의 링크를 클릭하여 읽기도 했다.

- ① ㉢에서 복합 양식 정보가 결합된 인쇄물 환경에서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자료의 단점이 부각된다.
- ② ㉣에서 디지털 텍스트와 달리 독자가 충분한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인쇄물 텍스트의 장점이 드러난다.
- ③ ㉤에서 인지 부하가 적은 효율성 중심의 독해 전략이 적용될 수 있는 디지털 텍스트의 장점이 나타난다.
- ④ ㉣에서 인쇄물에 비해 읽기 속도가 빠르더라도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저하되는 디지털 읽기의 단점이 부각된다.
- ⑤ ㉢에서 독자가 읽기 흐름을 통제하는데 실패한 사례를 통해 하이퍼텍스트 구조가 지닌 단점이 드러난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중 매체의 이미지나 텍스트는 대체로 허구성을 지닌다. 이러한 허구적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과 무관하게 문장 그 자체가 ㉠ 갖는 명제인 의미론적 내용과 맥락을 통해 수용자가 실제로 인식하는 사용상의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 의미론적 내용과 달리 사용상의 내용은 대중 매체에 노출되는 수용자마다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사용상의 내용을 수용할 때 사회·문화적 맥락이 자연스럽게 삼입되는 현상을 발견한 폴랑 바르트는, 이러한 개입 현상을 ‘현대의 신화’라고 명명하였다.

바르트는 이미지나 텍스트를 기호로서 취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단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표기를 1차 기호 체계, 그리고 이것과 사회·문화적 함의가 덧씌워져 생성한 새로운 층위의 의미를 2차 기호 체계로 분류하여 현대의 신화를 설명하였다. 현대의 신화는 본질적으로 2차 기호 체계가 작동하는 매체를 의미하고, 생산자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현실을 재구성한 의미에 대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은밀하고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전파한다. 결국 바르트는 모든 콘텐츠가 사회적 함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가 이를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바르트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실존하지 않는 허구적 내용을 담은 매체를 이해 가능한 명제로 인식하는 인지적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허구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사용상의 내용은 물론 의미론적 내용조차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허구적 문장이 수용자의 의식 속에서 성립하는 과정을 해명하기 위해 ‘불완전 명제 이론’을 도입할 수 있다.

**불완전 명제 이론**은 허구의 문장이 일반적인 문장과 같이 의미론적 내용을 포함하되 허구적인 지시대상을 가진, 즉 지시대상이 비어 있는 형태를 ㉡ 취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인종차별이 없다’는 취지로 제작된 가상의 흑인 군인이 그려진 선전물을 인식할 때 작동하는 1차 기호 체계에서, 그 명제는 온전한 사실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불완전한 상태로 남게 된다. 하지만 정교한 연출과 반복적인 노출 속에서 수용자는 이를 기각하지 않고, 명제의 나머지 부분이 형성한 최소한의 구조적 틀이 제시하는 의미론적 내용을 인식하여 결합을 용인하게 된다. 수동적인 수용자가 불완전한 구조 속에서 의미론적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선전물이 의도한 사용상의 내용이 수용된 매체에 자명한 진실인 양 자리잡게 되는 2차 기호 체계가 동작하는 것이다.

(나)

‘금성’을 의미하는 서로 다른 단어 ‘셋별’과 ‘개밥바라기’에 대해 ‘셋별은 셋별이다.’와 ‘셋별은 개밥바라기이다.’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독일의 언어 철학자 고틀로프 프레게는 이러한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 기호를 ‘뜻’과 ‘지시체’라는 이원론적 체계로 구분하여 분

석하는 의미론적 지시 이론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뜻은 ‘셋별’이나 ‘개밥바라기’와 같이 언어 기호가 대상을 ㉢ 지시하는 방법이고, 지시체는 금성 그 자체처럼 언어 기호가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객관적인 실체이다. 앞선 사례에서 프레게는 ‘a는 b이다.’는 ‘a는 a이다.’와 달리 지시체가 같더라도 뜻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가 더 많은 정보를 내포한다고 생각했다. 더 나아가 프레게는 뜻을 주관적인 관념보다는 객관적인 존재자로 취급함으로써 언어 사용자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지시체와 뜻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프레게의 ‘뜻’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오직 하나의 대상을 지칭하는 한정 기술구가 포함된 문장을 분석할 때 러셀은 기술 이론을 제시한다. “프랑스의 현재 국왕은 대머리이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자면, ‘프랑스의 현재 국왕’은 실존하지 않는 대상이므로 프레게에 의하면 지시체가 부재하는, 참도 거짓도 아닌 문장이 된다. 반면, 러셀의 기술 이론에 따르면 이 문장은 존재 조건, 유일 조건, 속성 조건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주어진 문장은 존재 조건 “프랑스 국왕인 대상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와 유일 조건 “프랑스 국왕인 대상은 오직 하나뿐이다.”, 속성 조건 “그 대상은 대머리라는 속성을 가진다.”라는 세 명제의 결합이라는 것이다. ㉣ 지시체가 실존하지 않으면 진리를 판별할 수 없다고 생각한 프레게와는 대조적으로, 러셀은 범주화된 명제의 진리를 판별함으로써 총체적인 진리를 ㉤ 가릴 수 없던 논리적 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러셀의 기술 이론은 문장의 문법적 구조와 논리적 구조를 분리하며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 다룰 때 발생하는 논리적 혼란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철학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러셀 역시 일상 언어의 복잡성을 완벽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술 크립키와 같은 후대 철학자들은 고유 명사가 한정 기술어의 집합에 불과하다는 러셀의 견해를 반박하며, 이름은 대상의 속성과 관계없이 사회·언어적 맥락 속에서 그 대상을 끝까지 지칭하는 고정 지시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언어가 논리적 조건의 결합을 넘어, 대상과 맺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중요하다는 논의로 이어지는 바탕이 되었다.

4.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가)는 매체의 수용자가 지녀야 할 태도를 강조하고, (나)는 문장의 진리를 판별하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 ㉡ (가)는 허구적 내용을 인식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나)는 러셀의 문장 분석법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 (가)는 불완전 명제 이론이 적용되는 사례를 소개하고, (나)는 허구적인 내용이 문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다.
- ㉣ (가)는 현대의 신화가 동작하는 원리를 도출하고, (나)는 다양한 학자의 이론에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다.
- ㉤ (가)는 대중 매체가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나)는 언어 분석에 대한 다양한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5. 불완전 명제 이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판적인 태도의 대중이 허구적 내용이 담긴 선전문물을 인식할 때에는 선전문물의 의미론적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다.
- ② 문장이 가진 최소한의 논리적 틀만으로도 허구적 내용은 인지 체계 안에서 이해 가능한 정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③ 현대의 신화가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불완전 명제의 결합이 수용되는 인지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④ 허구적 내용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수용 방식에 따라 수용자가 결합을 용납하고 의미론적 내용을 수용하게 된다.
- ⑤ 생산자가 의도한 사용상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맥락이 불완전 명제의 수용 과정에 개입하여 의미를 형성할 수 있다.

6. (가)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르트는 ‘셋별’과 ‘개밥바라기’가 모두 ‘금성’을 의미하는 관계이더라도 표기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1차 기호 체계가 동작한다고 주장하겠군.
- ② 바르트는 수용자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지시체와 뜻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프레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③ 프레게의 의미론적 지시 이론에 따르면 선전문물에서 허구적 내용에 대한 지칭 표현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수용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겠군.
- ④ 러셀의 기술 이론에 따라 “흥부는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다.”라는 문장을 범주화했을 때, 속성 조건과 유일 조건은 모두 불완전 명제에 해당하는군.
- ⑤ 슐 크립키의 견해에 따르면 수용자가 고유 명사를 인지하여 기호 체계가 동작하는 과정에서 현대의 신화가 새로운 의미를 형성할 가능성은 없겠군.

7. (나)를 바탕으로 할 때, ㉔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뜻이 다르다면 지시체가 실존하지 않아도 허구적 문장이 포함하는 정보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② 지시체는 뜻과 달리 현실에 존재하는 실체적인 대상이므로 지시체가 부재하면 뜻 또한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뜻은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뜻만으로 진리를 판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④ 주어진 명제를 조건 구성 단위로 분해하면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 분해된 명제의 진리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⑤ 지시체가 없더라도 뜻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지시체는 현실과의 대응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8. (가), (나)에 등장하는 학자들의 관점에서 <보기>의 입장을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마이닝**: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은, 비록 현실의 시공간에 물리적으로 실재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속성을 지닌 ‘어떠함’의 상태로는 존재한다. 즉, ‘황금 산’이나 ‘둥근 사각형’처럼 물리적 실체가 없거나 심지어 논리적으로 모순된 대상일지라도, 사고 속 대상으로 지향되는 순간 고유한 속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허구적 대상이나 내용 역시 의미를 지닌 사고의 객체로서 문장의 구성 요소로 온전히 성립할 수 있다.

학자	비판의 내용
바르트	허구적 대상의 존재론적 지위에만 주목하고 의미론적 내용만을 중시함으로써, 내용의 수용자마다 수용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음을 다루지 않았다. …… ①
프레게	사고 속 대상에 지시 표현을 대응시키는 과정에 사고의 주체인 인간의 심리가 개입한다면, 사고 속 대상이 객관적인 존재자로 취급될 이유가 없다. …… ② 뜻이 성립하는 것과 지시체가 실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를 모두 ‘대상’으로 격상하면 ‘실존하는 것’과 ‘정의된 것’의 경계가 무너지게 된다. …… ③
러셀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사고 속에서 상정하고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는, ‘존재’를 속성이 아닌 조건으로 격하여 취급하는 것과 같다. …… ④ 문장의 구조만으로 부재하는 대상을 존재한다고 착각해서는 안되며, 존재 조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혀냄으로써 논리적 혼란을 제거해야 한다. …… ⑤

9. 문맥상 ㉑~㉕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㉑ : 그런 사소한 일들을 갖고 화를 내는 것이 잘못이다.
- ② ㉒ : 친구는 감기가 나은 뒤 음식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 ③ ㉓ : 코치는 선수에게 컷속말로 다음 행동을 지시하였다.
- ④ ㉔ : 사건의 진상을 가리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였다.
- ⑤ ㉕ : 국회는 국민과 관련된 법률을 입법하는 일을 다룬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건설 현장에서 활용되는 고정식 크레인인 타워크레인은 고층 건설 작업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이다. 하지만 타워크레인은 크레인 자체가 넘어지는 현상인 ㉠전도가 발생하거나, 물체를 인양하기 위해 길게 뻗어나간 붐이 휘어지는 현상인 ㉡좌굴이 일어날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구조·역학적 이상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은 충분한 역학적 설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크레인은 물체를 인양하기 위해 붐에 자재를 적재하는 순간부터, 기둥에 해당하는 마스트를 전도 축으로 하여 '양중 모멘트'가 발생하게 된다. 양중 모멘트는 작업 반경과 적재된 물체의 무게의 곱으로 표현되며, 양중 모멘트가 마스트로부터 크레인의 무게 중심까지의 수평 거리와 크레인 중량을 곱한 '안정 모멘트'보다 클 때 전도가 발생한다. 따라서 더 무거운 물체를 인양하기 위해서는 안정 모멘트가 충분히 커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크레인의 중량을 올리기 위한 콘크리트 평형추를 설치하기도 한다.

크레인이 적재물 방향으로 넘어지는 전도가 시작되면 크레인의 무게 중심이 적재물 방향으로 이동하여 안정 모멘트가 줄어들게 되지만, 전도 축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는 멀어져 양중 모멘트가 늘어나게 된다. 결국 전도가 발생하면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양하는 물체의 하중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안정 모멘트를 상승시키기 위해 크레인이 과하게 무거워지면, 무게를 견디는 성질인 강도가 낮은 크레인에는 구조적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크레인의 운용 시에는 전체 하중이 크레인에 구조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하중인 임계 하중의 8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는 정하중과 활하중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되는 값이다. 정하중은 건축물 자체의 무게로서 영구적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인 반면, 활하중은 물체나 사람이 이동할 때 발생하는 가변적인 무게를 의미한다. 문제는 붐을 속이 팍 찬 소재로 만들면 구부러려는 힘인 굽힘 모멘트를 버티지 못해 좌굴이 생기고 강도를 낮추자니 자르려는 힘인 전단력을 버티지 못한 부재가 끊어지는 ㉤파단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는 삼각형 형태를 반복적으로 조합한 트러스 구조가 적용된다. 하중에 대항하여 생기는 저항력인 내력은 늘어나려는 힘인 인장력과 눌릴 때 버티는 힘인 압축력 등으로 구성되는데, 트러스 구조는 굽힘 모멘트를 압축력과 인장력으로 치환하여 하중을 분산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또한, 널리 쓰이는 고강도 소재인 강철은 무겁다는 단점이 있지만, 압축력과 인장력을 견디는 특성이 탁월하다. 따라서 강철 소재의 트러스 구조로 붐을 구성하면 좌굴과 파단을 모두 예방할 수 있고, 정하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바람의 영향이나 물체의 무게를 고려한 활하중에 더욱 여유를 둘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10.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충분한 역학적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타워크레인의 설계는 구조·역학적 이상을 초래한다.
- ② 임계 하중이 큰 타워크레인은 자체의 무게인 정하중이 크다.
- ③ 트러스 구조는 굽힘 모멘트를 다른 내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전도가 시작되면 양중 모멘트와 안정 모멘트의 차이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 ⑤ 강풍으로 인한 건축물 하중의 변화는 활하중으로 분류된다.

1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콘크리트 평형추를 설치하여 예방할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물체를 인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 ③ ㉢과 ㉣은 모두 크레인을 구성하는 소재의 강도가 부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 ④ ㉣은 ㉠이나 ㉡과 달리 임계 하중을 초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이상이다.
- ⑤ ㉠~㉣은 모두 강철 소재의 트러스 구조 적용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무게가 30,000kg이고 임계 하중이 60,000kg인 타워크레인 A에 장착 가능한 콘크리트 평형추의 무게는 5,000kg이며, 크레인의 무게중심과 마스트 사이의 수평거리는 5m이다. 표는 적재물의 무게와 작업 반경을 나타낸 것이다.

연번	적재물	무게(kg)	작업반경(m)
1	철근	10,000	12.0
2	콘크리트	15,000	11.0
3	유리	7,000	27.0

(단, 크레인의 무게 중심 변화와 활하중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평형추를 장착하지 않으면 A는 모든 물체를 인양할 수 없다.
- ② 평형추를 3개 장착했을 때 A가 인양할 수 있는 물체는 '유리' 뿐이다.
- ③ 평형추를 2개 장착하고 '콘크리트'를 인양하면 A가 전도될 위험이 있다.
- ④ 평형추를 2개 장착하면 A는 '철근'과 '유리'를 인양할 수 있다.
- ⑤ 평형추를 1개 장착하면 A는 '콘크리트'와 '유리'는 인양할 수 있지만 '철근'은 인양할 수 없다.

13. 문맥상 ㉠,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   | ㉠        | ㉡        |
| ① | 포함(包含)한다 | 산출(算出)되는 |
| ② | 함유(含有)한다 | 계산(計算)되는 |
| ③ | 내재(內在)한다 | 유발(誘發)되는 |
| ④ | 포괄(包括)한다 | 도출(導出)되는 |
| ⑤ | 함축(含蓄)한다 | 확정(確定)되는 |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금의 부과와 징수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는 원칙을 **조세 법률주의**라고 한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조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법률의 고도화로 인해 경제 활동이 다변화되는 현실 속에서, 법률에 열거된 사항만을 그대로 적용하는 조세 열거주의만 고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법적인 유추 과정을 포함하는 조세 포괄주의 역시, 조세 법률주의의 일부로서 균형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조세 포괄주의에서 동작하는 ㉠법적인 유추 과정은 하나의 사례를 다른 사례로 확장하여 적용한다기 보다는 서로 다른 사례들을 연결하는 일반적 명제를 매개하여 개별적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를테면 특정한 법률을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선례와 현재의 사실을 비교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교되는 수많은 공통점과 차이점 중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을 추려내기 위해 일반적 명제를 설정하며, 이렇게 추출된 일반적 명제를 현재의 사실에 비추어 본다. 만약 현재의 사실관계가 일반적 명제의 규율 범위 내에 부합한다면, 이는 단순한 사례의 유사성을 넘어 법적인 유추 과정에 근거한 정당한 과세로서 기능할 수 있다.

특히나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상속·증여세제에서 조세 열거주의만을 적용할 경우, 가족 내 분산 증여나 번복적인 재산 이전 등 조세 회피 시도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두 세목은 부과 방식과 적용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기에, 구분 과정에서 법적인 유추가 개입할 여지가 상당하다.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된 재산에 대해 국가가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상속 과정에서 과세 기관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가치를 산정하고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가족 단위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납세 의무는 상속인에게 있다. 단,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공제받는 등 세 부담 경감의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증여세는 생존해 있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 재산을 받는 개인 단위로 부과되며 그 사람이 납세 의무를 진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 개별

증여 행위마다 부과된다는 점이 상속세와의 차이점이나, 일정 기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분산 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이렇듯 더 많은 재산을 이전할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에 상속과 증여, 혹은 소득과 같은 다른 세목과의 경계를 약용하여 고의적인 과세 공백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과세 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세금을 부과해서도 안되기에, 조세 열거주의와 조세 포괄주의는 상황에 맞추어 유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세 기관과 독립적으로 과세의 정당성을 따지고, 과세 처분을 취소·조정하는 조세 심판원이 과세 기관의 과세권 남용을 견제하고 있다.

14.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에 따라 과세 금액이 달라진다.
- ② 과세 공백과 같은 조세의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 심판원이 세금에 대한 내용을 판단한다.
- ③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과세 단위와 납세 주체가 상이하다.
- ④ 조세 열거주의는 명확한 법령을 기준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진다.
- ⑤ 상속세는 과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 이외에도 추가적인 공제 기회를 제공한다.

1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령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상황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 ㉠이 활용될 수 있다.
- ② 과세 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합리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을 거쳐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 ③ ㉠은 과세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여 조세 열거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 ④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적 명제를 도출한 뒤 현재와 과거의 사실관계를 비교한다.
- ⑤ 조세 심판원이 전례가 없는 과세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개입할 수 있다.

16. 조세 법률주의가 바르게 적용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상속인이 가입한 사망 보험 상품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본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다.
- ②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 파생상품을 지인에게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 ③ 조세 심판원이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과세에 제기된 이의를 수용하여 과세 기관에 의견을 전달한다.
- ④ 물건의 법적인 소유권을 자녀에게 이전하지 않고 자녀가 소유한 회사에 이전시킨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 ⑤ 기업의 복잡한 자산관계를 활용하여 대가 없이 기업의 재산 일부를 얻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A는 본인이 지배주주인 법인 X에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X는 A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낸 뒤 이를 담보로 은행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A와 특수관계에 있는 B가 지배주주인 법인 Y에 대하여, X가 대출받은 금액 중 Y의 은행 대출 한도를 넘는 금액을 Y에게 대출해 주었다. B는 거래 받은 금액으로 Y의 사업을 확장하여 이익을 얻었다. 이에 ㉠국세청이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와 제45조의3을 근거로 Y와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자 B는 일련의 과세 행위에 대하여 ㉡조세 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의가 부분적으로 수용되어 B의 세무만 변경되었다.

-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 “증여”란 그 행위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증여세법 제45조의3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과 거래하여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은 A의 토지 증여 행위가 결과적으로 Y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귀결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겠군.
- ② ㉠은 X에게 A의 토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때, Y와 B에게 적용한 과세 근거를 마찬가지로 적용하였겠군.
- ③ ㉡는 ㉠가 X에 의한 Y의 재산가치 증가와 Y의 사업 확장에 따른 B의 이익 창출이 개별적 사건임을 간과했다고 보았겠군.
- ④ ㉡는 법령에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세 포괄주의를 근거로 이의를 수용했겠군.
- ⑤ ㉡는 A에 의해 B가 이득을 본 사실 자체는 증여세 부과를 위한 일반적 명제의 규율 범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겠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위윤, 위진, 위준 삼형제는 각각 반 씨, 채 씨, 맹 씨를 아내로 맞이한다. 그러나 두 동서는 반 씨를 시기하고 모함한다. 시어머니 양 씨가 반 씨의 진심을 알고 두 며느리를 꾸짖자, 채 씨와 맹 씨는 각자 본가로 떠나게 된다.

차설, 채 씨는 본부에 돌아와 부모 슬하에 배알하고 그간 존후를 묻자오니, 부모와 집안 전체가 대경하여 그 연고를 물으니, 채 씨가 눈물을 머금어 양 씨가 반 씨의 참소를 듣고 무죄히 내쳐짐을 이르니, 채영 부부와 부자가 절치부심하여 설분하기를 피하더라.

차시에 채 씨의 부친은 좌승상 채영이니, 위엄이 당당하고 권세가 일세에 으뜸일러라. 일찍 아들 일곱이 있어 다 입조하여 명망이 조야에 진동하고 천자가 승상의 부자를 총애하사 은권이 조정에 따를 이 없더라.

차시에 채 승상이 딸의 말을 듣고 대로 왈,

“내 사람을 살피지 못하여 교양이 없어 말과 행동이 서투르고 무식한 집에 딸을 출가시켰다가 문호에 욕 이미치게 하니 어찌 분한치 아니하리오.”

하고, 이에 천자로 더불어 의논하고 표를 올려 반옥과 위윤의 죄상을 주달하니, 차시 위서량이 경사에 와 벼슬에 나아가매 청렴 정직하여 직분을 수행함에 일호라도 구차함이 없으니, 상이 위윤의 재주를 기특히 여기사 벼슬을 돋우어 예부 상서를 시키시니, 위상서가 천운에 속사하고 돌아왔으나, 고향 소식을 알지 못하여 아침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니, 문득 반 씨의 중형 직금랑 반희가 궐중에 들어갔다 나가오는 길에 위 상서를 보고 예뵈 후이르되,

“금일간에 채영의 아들 채원의 상소를 보니, 형의 허물과 숙부의 죄과를 고달하되, ‘숙부가 병부 상서로 성총을 가리어 상벌이 분명치 못하니, 이는 기군망상한 죄인이라. 민심을 산란케 하니, 위윤과 반옥을 함께 참하여 민심을 안정케 하여지이다.’ 하였으니,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일이 있나니이까.”

상서가 양천 탄 왈,

“이는 간인이 있어 모해함이라. 그러나 어찌 기군이냐 하시고 이제 그저 있지 못하리니 궐하에 대죄하리라.” 희 왈,

“들으니 형이 채가와 불화가 있다 하더라.”

하거늘, 상서가 탄식하고 궐하에 나아가니, 반희가 참연하여 하더라. 상이 상소를 보시고 대로 왈,

“짐이 어찌 사람을 그릇 쓰리오. 위윤은 청렴 강직하고 반옥은 충실의 후예라 짐이 수족을 삼았더니, 이제 참연이 여차하니 가장 통해하도다.”

채영이 주 왈,

“위윤과 반옥은 일대 소인이라. 두렵건데 후환이 있을까 하나이다.”

제신이 다 채영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상고묵묵이라. 상이 위반 이인을 아끼시나 조신 중 일인도 변백치 못하는지라, 할 수 없어 위윤은 장사에 원찬하고, 반옥은 강동에 정배하시고 탄식해 마지 아니하더라.

(중략)

화실, 채 씨는 흥이 스승을 얻어 글을 배운다 하되, 기이한 선관이 밤마다 임한다 함을 듣고 위진에게 이 말을 일러 왈,  
 “반 씨가 삼년이나 나오지 아니함을 괴이히 알았더니, 원래 이 같이 **음일한 행사가** 낭자하니 이제 바빠 처치하소서.”  
 위진이 대로하여 이날 밤에 창두 이십여인을 보내어 반 씨 모자를 죽이려 할새, 이에 분부 왈,  
 “너희는 반 씨의 여막에 가불을 놓고 반 씨 모자를 불의에 들이치면 마땅히 중상하리라.”  
 하니, 창두가 저마다 용약하여 일시에 가니라.  
 차시에 반 씨는 정히 혼미하여 잠간 졸더니, 비몽사몽간에 일위부인이 대호 왈,  
 “미구에 액이 당도하였거늘 무슨 잠을 자느뇨”  
 반 씨 놀라 깨달으니 **침상일몽**이라. 또 들으니 또 이르되,  
 “어서 피하라. 만일 시체할진대 가히 면치 못하리라.”  
 반 씨 대경하여 급히 흥을 불러 이 말을 이르니, 흥이 놀라 왈,  
 “이는 반드시 왕모의 혼령의 가르침이라. 바빠 피하시이다.”  
 하고, 모친을 붙들어 한 피를 넘어가 부인을 바위틈에 앉히고 피에 올라 바라보니, 벌써 집에 불이 일어나고 무수한 사람이 두루 다니며 요란하거늘, 급히 돌아와 모친께 고왈,  
 “만일 **도적 같으면 우리를 찾을 바 없거니와**, 우리를 방문하여 찾아보니 매우 의심스러운지라. 이곳에 있지 못할지니 멀리 가시이다.”  
 하고, 모친을 인도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친지가 아득하여 갈 길이 묘연하고 기력이 점점 쇠진하니 모자가 서로 붙들고 통곡하더라.  
 이때 문득 한 노인이 이르러 문왈,  
 “그대는 어떤 사람이관대 적막한 산중에서 이같이 방황하며 슬퍼하느뇨”  
 흥이 대 왈,  
 “깊은 밤에 길을 잃고 정신이 아득하여 우나이다. 원컨대 대인은 길을 인도하소서.”  
 노인이 웃어 왈,  
 “공자가 과도히 놀랐도다.”  
 하고, 인하여 소매 안으로부터 줄 같은 것들을 내어 주며 왈,  
 “모자가 하나씩 나눠 먹으라.”  
 하니, 흥의 모자가 받아먹으며 문득 정신이 쇠락한지라.  
 정히 사례코자 하더니, 노인 왈,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이더니, 양 부인의 청을 듣고 그대 모자를 구하노라.”  
 하고 문득 간데없거늘, 흥이 공중을 우러러 무수히 사례하고 모친을 모셔 양강에 이르니, 부인이 통곡하여 왈,  
 “친정이 비록 서로 허물없이 가깝게 지내나 이 거동으로 어찌 촌중에 들어가리오.”  
 흥이 위로하며 모셔 외가 반부를 찾아 나아가니, 유 부인이 여아를 보고 크게 반기며 흥이 이같이 장성하여 수미함을 보고 반기는 중, 반 공과 위 상서가 원찬됨이 슬퍼 모녀가 서로 위로하더라.

- 작자 미상, 「반씨전」 -

\* 원찬하다: 먼 곳으로 귀양 보내다.

1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채씨는 자신이 분가에 돌아온 까닭을 반씨의 참소를 듣고 무죄한 자신을 내쫓은 양씨의 탓이라고 호소한다.
- ② 임금은 좌승상의 청을 듣고 예부 상서를 귀양 보내기로 결심하면서도 탄식하며 이러한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③ 채씨는 흥이 밤마다 글을 배우는 행위를 ‘음일한 행사’로 포함하며, 위진은 이 말을 듣고 반씨에게 크게 분노하게 된다.
- ④ 흥은 ‘도적 같으면 우리를 찾을 바 없’을 것이라 추측하며,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모친과 함께 ‘산곡’으로 향한다.
- ⑤ 외가에 찾아간 반씨는 유 부인의 환대를 받으며 반 공과 위 상서가 귀양가게 된 것을 흥과 함께 서로 위로한다.

19. 「상소」와 「침상일몽」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소’는 반희가 위 상서와 대화하는 도중 반씨 집안과 채씨 집안 사이의 갈등을 인지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② ‘상소’는 채씨의 말을 들은 채 승상이 작성하여 임금에게 올린 것으로, 채 승상이 권세를 악용하는 간인임을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 ③ ‘상소’는 채씨가 가진 개인적 원한을 ‘민심을 산란케 하’는 국가적 위기로 둔갑하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이후의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 ④ ‘침상일몽’은 여러 차례 반씨의 피난을 촉구하며, 이로 인해 반씨가 즉시 자리를 피하게 되는 개인성을 제공한다.
- ⑤ ‘침상일몽’의 내용이 단순한 꿈으로 치부되지 않고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 흥이 그 내용의 진위를 판별하도록 개입함으로써 독자의 신뢰도가 상승하게 된다.

20. 다음에 따라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가정의 갈등을 주제로 하는 고전 소설은 전형적인 구조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반씨전」은 가문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 달리 동서간의 갈등을 다루거나, 선악에 무관하게 여러 조력자가 등장하는 등 기존의 틀을 벗어난 다양한 특징이 있어요

- ① 창두는 위진의 말만을 믿고 반 씨를 죽이기 위한 채씨의 계락을 돕는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조력자의 모습이 나타나는군.
- ② 양씨가 노인을 통해 반씨를 돕는다는 점에서, 초현실적인 인물이 현실적인 인물을 매개로 조력하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③ 양씨와 채영의 갈등을 표면에 내세우며 가문의 갈등을 비교적 부각하여 서술한다는 점이 눈에 띄는군.
- ④ 채씨와 맹씨가 반씨를 시기하며 모함을 위한 계락을 마련한 점에서 시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쟁이 그려지는군.
- ⑤ 채영은 채씨의 사연을 듣고 이를 돕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악인을 돕는 선한 조력자가 그려지는군.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시대 교육의 기본서인 「소학」에서 형제는 어려움을 함께 해야 하는 관계로 규정된다. 가족의 안녕이 형제 화락(和樂)을 통해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족, 가문의 변성과 해체가 형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형제간 우애는 형제의 처와 자식의 행복보다 우선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윤리적 당위성으로 인해 위씨 형제는 안고 있던 갈등을 표출할 수 없었으며, 외면되었던 갈등은 결국 부인이라는 대리인이자 약자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 ① 반씨의 도덕적 우위에 대한 부인의 시기심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장면에서 부인이 갈등을 대리하는 양상이 보인다.
- ② 위진의 처가인 체씨 집안에서 위운을 유배보내는 음모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형제 간의 갈등이 간접적으로 표출된다.
- ③ 위진이 위운의 부인에 대한 공격을 명령하는 장면은 형제간의 갈등이 부인을 경유하여 표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체 승상의 아들들이 모두 입조하여 그 명망이 높은 것은 위씨 형제와 대조적으로 형제 화락이 실현된 모습을 보여준다.
- ⑤ 위진은 윤리적 제약에 의해 위운과 직접 대립하지 않고, 명분을 내세워 내재된 갈등을 반씨에게 전이하여 표출한다.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 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우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A]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차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험한 땅에서 험한 번 치르고  
 눈보라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떡이랑  
 나눠서 요기하며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B] 푸르른 바다와 거리 거리를  
 설움 많은 이민 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골짜 골짜를  
 갈 때와 마찬가지로  
 햇빛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햇빛은 나요  
 나라에 기쁜 일 많아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

총을 안고 뿔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우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 이용악, 「하나씩의 별」 -

\* 차무스: 중국의 송화강 상류에 있는, 러시아 국경 근방의 도시.  
 \* 뿔가: 폴카(polka), 보헤미아 지방의 경쾌한 무곡(舞曲)

(나)

오동나무꽃으로 불 밝힌 이곳 첫여름이 그림자 아니한가?  
 ┌ 어른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나.  
 [C]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 턱에 이마를 고일 때나,  
 └ 네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거리는구나.

모처럼 만에 날아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리어  
 가여운 글자마다 ㉠ 먼 황해가 날실거리나니.

.....나는 갈매기같은 종선\*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

┌ 쾌활한 오월 벵타이가 내쳐 난데없는 순풍이 되어,  
 [D]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우에 솟은,  
 └ 외따른 섬 로맨트를 찾아갈까나.

일본 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려 간  
 죄그만 이 페스탈로치야, 피고리 같은 선생님이야,  
 날마다 밤마다 섬 돌레가 근심스런 풍랑에 찻히는가 하노니,  
 은은히 밀려오는 듯 머얼리 우는 오르간 소리.....

- 정지용, 「오월 소식」 -

\* 종선: 큰 배에 딸린 작은 배.

(다)

모든 여행은, 그것이 비록 아침에 떠났다가 한 잠도 자지 않고 새벽이 되기 전에 돌아오는 짧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 터널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터널의 울림은 깊고, 어둠은 몽롱하지만, 그러나 모든 터널은 바깥을 향해 열려 있다. 한때는 예닐곱 살 어린아이이던 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의 여행이 늘 성공적이던 것은 아니다. 그럴 리가 있으랴 아마도 대개는 실패였으리라. 터널을 지나 세상으로 나왔으나, 그 세상이 내가 원하던 곳인 적은 그리 많지 않다.

나는 대개 길을 잃고 망연자실 서 있다가 서둘러 되돌아갈 터널을 찾는다. 나는 떠나는 쪽보다는 늘 회귀하는 쪽이어서, 실패를 자인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취하는 태도는 더 멀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쪽이다. 그리하여 여행지에서 남는 사진은 황홀한 추억보다 망설임과 초조함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빛나는 사진은 있다. 대체 언제 찍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찍혔는지 알 수 없으나 사진 속의 나는 잊음을 다 드러낸 채 웃고 있다. 기억할 수 없는 찰라가 나를 위로한다. 무엇이 걱정이라. 나는 수십 년을 살고도 여전히 살아 있으니, 떠나는 일은 이미 내 몸이 아니라.

(중략)

여행은 길에서 길로 이어지는 낯선 발걸음이다. 길에서 만나는 작은 풀 포기, 흙의 냄새, 꽃과 나무의 모양, 사람과 짐의 생김새... 여행지에서 만나는 낯선 기운들이 오히려 편안함을 안겨주기도 한다. 오랫동안 꼭꼭 닫혀만 있던 **마음의 문**이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열리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역시 여행의 맛은 돌아올 곳을 정해두고 떠났다는 데 있다. 뻥한 사진 몇 장 건져서 돌아오는 길이라 해도 여행지에서 **스친 시간**은 내게 또 하나의 나이트를 남긴다. 그리곤 곧잘 생각을 고쳐먹는다. 그래, 결국은 다 잘 되려고 벌어진 일이라니, 후회만큼 부질없는 일은 없으려나...

- 김인숙, 「길의 안내자들」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불안정한 심리를 나타낸다.
- ② 과거와 현재의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며 상황을 강조한다.
- ③ 대비되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표현한다.
- ④ 상징적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감탄사를 활용하여 목적을 이뤄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3.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화물 열차의 '검은 문들'이 '탄탄히 잠겨졌다'는 언급은 (나)의 '기억'과는 달리 부정적으로 인식된 과거와의 단절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 '우리'가 '푸르른 바다'를 보는 행위와 (나)의 '오동 나무꽃', '어른 나그네 꿈'은 모두 화자의 기대감과 연관된다.
- ③ (가)의 '설움'은 '이민 열차의 흐린 창'에, (나)에서 '선생님'의 소식을 기다리며 걱정하는 화자의 모습은 '섬 둘레'에 붙어오는 '근심스런 풍랑'에 투영된다.
- ④ (가)에서 '잠이 들'은 '슬라브의 늪은 병정'과 달리 (나)의 화자는 '오르간 소리'를 들으며 목표를 주체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한창 치달리고 있는' 중이다.
- ⑤ (가)에서 '험한 변 치르고' '서울'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나)의 '파랑새'는 모두 특정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유발한다.

24.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벽차오르는 감정을 역동적으로 형상화하여 '날아온 소식'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공간이다.
- ② ㉡은 '외따른 섬'이 있는 장소로, '나'가 그리워하는 대상과 화자 사이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공간이다.
- ③ ㉢은 '기억할 수 없는 찰라' 속에서도 황홀한 추억이 드러나는 사진이 기록되기는 어려운 공간이다.
- ④ ㉣은 그곳에서의 시간 동안 '나'에게 '나이트'가 생기는 공간이자, 낯선 요소를 수용하는 공간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와 글쓴이가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성격을 지니는 공간이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문학 작품에서 '이동'은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넘어 인간의 삶과 작품의 서사를 관통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동의 결과는 낯선 환경에 놓인 인물에 의해 서사가 전개되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이동의 과정에서 다양한 공간이 갖는 함축적 의미가 대비되며 작품의 주제의식이 공고해지기도 한다.

- ① (가)에서 험벗은 '나'와 '돌아오는 이 사람들'은 모두 이동의 과정에서 함축적 의미를 갖는 공간을 경유하게 되는군.
- ② (가)에서 다양한 장소로부터 고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현재의 시적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군.
- ③ (다)에서 터널을 지나 세상을 향해 이동하는 '나'의 모습은 '스르르 열리곤 하는' '마음의 문'으로 형상화되는군.
- ④ (다)에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동을 강조하는 '나'의 태도는 '모든 터널은 바깥을 향해 열려 있다.'에서 공고해지는군.
- ⑤ (다)에서 '여행'의 결과로 낯선 환경에 놓인 '나'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며 주변 환경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군.

26. [A]~[D]를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남도 사람들'이 '눈보라 치기 전'에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B]에서 '함경도 사내'가 울지 못하는 이유와 같겠군.
- ② [A]에서 '초담배 밀가루떡'은 일상적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C]에서 화자가 잊지 못하는 '기억'과 유사한 소재이군.
- ③ [B]에서 '골짜기'를 '서러이 내다 보던' '나'와 대조적으로 [C]에서 '나'는 평화로운 공간에서 '첫어름'의 기억을 떠올리는군.
- ④ [B]에서 '푸르른 바다'를 창 너머로 관조하는 태도는 [D]에서 '푸른 물결' 위에 솟은 '로맨틱'을 대하는 태도와 유사하군.
- ⑤ [C]에서 '기억'이 '소곤소곤'거린다는 '나'의 인식은 [D]에서 '오월 벚타이'가 '쾌활'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는군.

27.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의 글쓴이는 삶의 불확실성과 실패를 필연적 과정으로 수용한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만은 힘든 과거의 경험을 성장의 지표로 삼는 모습은, 성취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과정을 긍정하는 인식의 전환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글쓴이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삶의 굴곡조차 자아 통합의 계기로 내면화하는 사유의 방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① ‘스친 시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글쓴이의 자아 성장에 기여하며 성장의 표지로 기능하는 소재이다.
- ② 반드시 ‘돌아올 곳’을 정하는 ‘여행’을 통해 근원적인 유한성을 자각한 글쓴이는 삶의 굴곡마저 중시하며 일상 속으로 편입함으로써 자아 통합의 계기로 삼는다.
- ③ ‘여행이 늘 성공적’일 ‘리가 있으라!’는 생각은 삶에서 실패가 배제될 수 없으며, 그것이 존재를 위한 필연적 과정으로서 수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 ④ ‘수십 년을 살고도 살아 있으니’ ‘무엇이 걱정이라’는 독백은 삶의 유한성을 인식한 글쓴이가 스스로를 위로하며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⑤ 방향을 표상하는 ‘망설임과 초조함’ 속에서도 ‘빛나는 사진’을 포착하는 글쓴이의 모습은, 외부적 성취가 부재하더라도 여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식의 전환을 형상화한다.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사이가 멀어진 계기에 관하여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을 회상한다.

“……내가 니를 업고 호계 시누이 집으로 가서, 니 할매한테 울며불며 올매나 애원했겠노 지발 집에 오셔서 내하고 같이 계시자꼬 말이다. 그래도 씨가 딱혀 드가야제. 순사도 어테 거게마 가는 줄 아나. 여계가 성모 여동상 집이라고 여계도 자주 와서 분탕을 친다 카미, 거게나 여계나 똑같다고 한사코 안올라가더라. 그때는 니 할매가 귀신한테 쪼였는지 죽자 살자 내 얼굴을 안 불러 안 카나. ㉠ 말 같은 메누리가 이 집 귀신 될라고 간택되는 바람에 멀쩡한 서방 죽고 자숙까지도 좌익에 미치갱이가 똤다고 동네방네 나발을 불고 댕기니, 시집 잘못 온 죄밖에 읓는 내 팔자가 와 그래 서럽던둥…… 그러던 차에 머신 뱀이 새 로 생기서 자숙하지 않는 빨갱이는 몽지리 잡아 영창에 처넣고 그중 악질은 총살시킨다 카이, 그때서야 니 애비가 어디선가 모 화로 돌아와 지서에 자숙을 한기라. ㉡ 보도 연맹인강 먼강, 거 게 가입해서 겨우 도망 안 댕기도 되는 살길을 찾았지러. 그래 되어까 시어미가 그제서야 딸네 집을 떠나 우리 집으로 옮겨 오더라. 참말로 사람도 좁쌀만 한데, 하는 짓까지 열매나 알밌던 지…… 보골이 낫지마는 그래도 니 할매가 집에 오니까 반갑데. 꼬라지도 보기 싫은 니 애비 사이에서 말도 부치고 하이께 집안

에 혼기가 쪼매 돌았지러. 그런데 알고 보이께 니 애비가 자숙을 하고도 지서 몰래 그것을 계속했던 모양이라. 일제 때는 야학당 한다고 시어미가 안 묵고 안 쓰고 장만한 논마지기를 쪼개서 팔아묵더이, 육이오 전쟁이 날때까지 지 에미 몰래 나머지 논마지기를 또 몽땅 다 팔아서 그놈으 빨갱이 자금으로 쓴기라. 그라고 전쟁이 터지자, 니 애비가 메칠 만에 온다 간다 말 읓이 사라지 뿌린 기 아니겠나. 보도 연맹 가입자들을 예미 검속한다 카는 소문을 어데서 들은 모양이라. ㉢ 미친놈으 서방. 그놈 믿고 자숙 돌까지 싸질러 가미 살은 내가 등신이지러. 니 할매는 지금도 이복 어테 자숙이 살아 있겠거니 하지만서도, 내 생각기로 버어쪼 똤졌다. 홀에미한테 불효하고 처자숙 버리고 도망질 간 늪이 땅에 두 발 던고 우째 살 수 있겠노 그렇게 니 애비가 읓어지고 나자, 하메 소식이 올까 올까 하고 기다리는 기 두달, 시에미마저 보따리를 싸가지고 또 호계 딸네 집으로 가 뿌린게 내가 무슨 청승으로 빈집을 지키겠노. 남은 논마지기도 읓으이께 하루 두 끼 묵기도 심이 들어, 내 짓이 안 나오이께 니 동상은 비실비실 말라서 다 죽어가제, 밤이모 순사들이 또 찾아오제…… 그때사 증말로 약이라도 묵어 죽고 싶더라. 그래서 내가 모진 결심을 안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사 마찬가지로 인께, 이 언손지러분 모화 땅을 떠나자고 말이다. 너거 두 성제간을 걸리고 업고, 견고 걸어 올산으로 나갈 때, 들판에 곡식이 자알 익었더라. 가랑잎은 날리고, 곧 엄동은 닥치는데 낫설고 물설은 올산으로 나오자, 집도 절도 읓이 자숙 데불고 우째 살꼬 싶어 눈앞이 캄캄하더라. 딸린 새끼만 읓었다 캐도 그때사 마 내 혼자 서가래에 목매달아 죽었을끼라. 올산에서 내가 너거 성제간 데불고 추위는 닥치는데 남으 처마 밑이나 역 대합실이나 헛간이나, 비 피하고 바람 막을 데도 가리지 않고 너거 성제간을 양쪽 가슴에 꼭 붙안고 그 체온으로 삼동 겨울철을 넘긴 그 시절, 츠음 이 에미가 한짓 이 먼공 아나? 바로 결뱅이짓이였데 이. 깡통 들고 통통 부은 손발로 남으 집이며, 미군 부대며 문전 걸식 동냥질을 했니라. 몸에 이가 수백마리나 꿩고, 열흘이고 보름이고 낫작도 몬셋은 얼굴에, 입성이라고는 똥두더기 같은 쪼든 이불을 둘러쪼이께 너거 성제간 풀은 말하모 머하겠노. 그 때 니가 다섯 살, 니 동상이 두 살이었다. 올산서 내가 호계 사 람도 만났으이께 니 할매한테 올산 땅서 결뱅이질하고 댕기는 메누리 소식도 전해졌을끼다. ㉣ 그러네 말하모 머하노 죽으모 제상 채리 줄 친손자가 그 지경인데 할미란 사람이 핏줄 찾을 생각도 았더라. 남남이라도 어테 그라겠나. 내가 메루치 장사로 방 한칸을 얻을 때까지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 오냐, 내가 이 두 자숙을 질질이 키어서 옛말하고 살때, 내 팔세한 이음으 시상, 어데 두고 보제이. 내가 무명지를 깨물어 맹세하미 나올 젓도 읓는 쪼그라진 가슴팍에다 피로써 십자가를 그렸니라. 지금도 보이제, 이 살점 날아간 손가락이…….”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밤, 종교품 교복만 사입하던 내게 처음으로 새 교복을 맞춰 주시고 어머니는 우리 형제를 앉혀 놓고 이 말을 하시며 눈이 붓도록 우셨다. ㉤ 살아온 당신의 역정과 그 울음이 너무 절절하여 나와 아우도 따라 울지 않을 수 없었고, 세 모자는 울음으로 밤을 밝혔다.

- 김원일, 「미망」 -

28. ㉠~㉣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비판적인 어조와 말줄임표를 이용하여 발화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 깊숙이 남아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도망 안 댕기도 되는 살 길을 찾'은 계기가 '보도 연맹'에 가입한 것임을 추측하며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직접적인 비난의 어휘를 사용하여 타인을 비방하고 발화자가 세상에 염세적인 인식을 지녔음을 조망하는 진술이다.
- ④ ㉣: 할머니가 며느리 소식을 듣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이를 비판하고 있다.
- ⑤ ㉣: 시간 표지를 사용하여 서술자의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밤'이 과거의 시간이라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윗글은 개인의 비극을 통해 사회의 보편적 고통을 드러내고, 이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이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작가는 전쟁의 여파로 파괴된 가족과 사랑의 기억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며, 심리적 고통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전쟁의 참혹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러한 시선은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관계를 성찰하도록 만들며, 회복과 연대의 필요성으로 귀결된다.

- ① 무너진 과거를 뒤로하고 '결심'을 통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머니'의 의지는 자식을 위한 행동으로 연결되며, 세상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맹세'로 삶의 정체성을 구체화하는군.
- ② 전쟁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대응은 가족의 회복을 가장 우선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삶과 이를 구성하는 이념의 관계를 중시하는 '아버지'의 대응과는 대조되는군.
- ③ 전쟁으로 인해 '아버지'가 집을 나가면서 '어머니'가 겪게 된 비극적인 상황은 사회의 보편적 고통을 드러내며, 이러한 고통이 '나'의 세대에 전이되는 과정이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군.
- ④ '어머니'와 '할머니'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는 생존의 문제로 인해 약화되지만, 이러한 관계를 '형제'와 '어머니'의 관계가 대체함으로써 '어머니'는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찾아가는군.
- ⑤ '할머니'의 선택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는 '할머니'와 '어머니' 각각의 삶을 구성하는 정체성이 모두 드러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시선을 통해 당대 사람들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돕겠군.

30. '할머니'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할머니'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며 어머니를 피함으로써 본인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할머니'는 새로운 '법'을 계기로 아버지가 자수하자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와 대화하며 집안의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③ '할머니'는 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탈내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되고, 어머니의 물질적, 정신적 비탄이 되어주지 못한다.
- ④ '할머니'는 울산의 '호계 사람'을 통해 어머니의 생활고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지 않았다.
- ⑤ '할머니'는 어머니가 '메루치 장사'로 '방 한칸'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어머니를 찾아와 '두 자숙'과 함께 지내게 된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붉은 난간에 기대 앉아 원근을 바라보니  
 옥계산 밝은 달은 은촉이 되어 있고  
 석봉의 가는 구름 취장이 되었구나

- [A] 사탄\*의 노랫소리 고기 낚는 늪은이오  
 화평에 피리소리 소먹이는 아이로다  
 지담에 뺏는 배는 일엽(一葉)이 가뭇고  
 물결에 비친 다리 반공(半空)에 무지개로다
- [B] 백암에 섰는 단풍 금병(金屏)을 둘러 있고  
 취벽의 늪은 술은 사시에 푸르렀다  
 석양이 고개에 걸려 만학(萬壑)이 한빛일때

① 철려장 손에 들고 돌길로 돌아가니  
 철쭉과 살구꽃은 바람에 흩날리고  
 둔덕 위의 버들가지 냇가에 푸르렀다

일홍을 못이기에 뉘대를 비껴들고  
 이끼 낀 돌에 앉아 벽담을 굽어보니

② 은린옥척은 경면(鏡面)에 뛰노는고  
 뉘릿줄에 오른 고기 난간 위에 올려 두고  
 비늘을 굽어내어 넓은 돌에 회쳐놓고  
 연잎에 빚은 술을 아이에게 지게 하여  
 표주박에 가득 부어 반취하여 누웠으니  
 공명을 다 잊으니 부귀인들 부러우랴  
 흥진의 뱃님네야 이 생애 웃지 마오

- [C] 일신이 한가하여 고요하게 거니니  
 화평한 풍미를 누가 아니 부러워하리  
 ③ 삼척오동 거문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유수 고산을 줄줄이 회롱하며  
 맑은 노래 불러내어 묘한 곡조를 화답하니  
 공중에 뚝뚝 소리 신선이 노니는 듯  
 삼신산 어디인가 무릉도원 여기로다  
 살구꽃과 복숭이꽃은 양기슭에 피어 있고  
 낙하\*와 외로운 따오기는 조모(朝暮)에 제비하다\*

소쇄한 정자 속의 ㉔매학으로 벗을 삼아  
 연하(煙霞)의 병이 들어 백년을 지내오니  
 있으나 없으나 세사(世事)도 나몰라라  
 - 신교, 「백석정별곡」 -

- \* 사탄: 모래사장의 여울. 또는 모래가 깔린 여울.
- \* 낙하: 낮게 드리운 저녁노을.
- \* 재비하다: 나란히 날다.

(나)

대장부 공 이루고 물러난 뒤에  
 임천에 초당 짓고 만권 서책 옆에 쌓고 천금준마 솔질하여  
 보라매 길들여 두고 노복 시켜 밭 갈리고 절 대가인 옆에 두  
 고 금준\*의 술을 부어 ㉕벽오동 거문고 새 줄 없어 무릎에 얹  
 고 남풍시 화답하여 강구연월\*에 누웠으니  
 보고 듣기 좋음과 마음의 즐거움은 이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 금준: 금으로 만든 술통.
- \* 강구연월: 변화한 거리에 달빛이 연기에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옮겨가며 관찰하는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자연에서 지내며 겪는 다양한 일들을 열거하여 총만 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스러운 감정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가)는 다채로운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나)는 특정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시하여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직접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내면의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32. [A]~[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지답에 뚝은 배'가 '가볍'다는 인식은 '벗님네'가 속세에 대한 미련과 고뇌에서 벗어난 상태임을 표현한다.
- ② [A]에서 '노랫소리'와 '피리소리'를 들던 화자는 [C]에서 '맑은 노래'를 들음으로써 조화로운 세계의 객체로 변모한다.
- ③ [B]에서 '사시에 푸르'른 '늪은 술'의 불변성은 흔들림 없는 내면 세계의 안정감을 가상의 세계에 대입한 결과물이다.
- ④ [B]에서 '철쭉과 살구꽃'의 모습과 '버들가지'가 '푸르렀'다는 인식은 [C]에서 '삼신산'이 '무릉도원'이라는 인식을 강화한다.
- ⑤ [C]의 '여기'에서 '일신이 한가'한 모습은 '연하의 병'으로부터 유발된 상황으로서 현재에 지극히 만족하는 심리를 드러낸다.

33. ㉑~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은 사대부의 소박한 차림새로, 여유로운 심리를 부각한다.
- ② ㉒은 자연의 생동감을 드러내고 풍류의 대상으로 제시된다.
- ③ ㉓은 화자가 완상하고 있는 강호의 분위기를 청각적으로 구체화한다.
- ④ ㉔은 화자가 동일시하는 대상으로, 정신적 수양의 지향점을 강조한다.
- ⑤ ㉕은 풍부한 물질적 기반을 상징하며, 경제적으로 풍족한 모습을 드러낸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연은 그 성질에 대한 예찬과 관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물질적 기반이나 사회적 지위를 동원하여 풍요와 유희를 누리는 무대인 세속적 전유(專有)의 공간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가)와 (나)에서 자연은 모두 행복감을 드러내는 장소이지만, (가)의 자연은 고결한 상징물들과 교감하는 탈속적 은일의 공간으로, (나)의 자연은 과업을 달성한 후의 만족감을 바탕으로 쾌락을 향유하는 전유의 공간으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① (가)의 자연은 '일흥'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행복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심미적 분위기를 형상화하는 '외로운 따오기'를 관찰하며 '세사'를 회피하는 은일의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 ② (나)의 자연은 '물러난' '대장부' 자리에 대한 세속적 미련을 느끼기보다는 '마음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전유의 공간이군.
- ③ (나)의 자연은 화자가 이룩한 '강구연월'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속적 성격을 지닌 (가)의 자연과 대비되는 공간이군.
- ④ (가)의 화자는 자연에서 '외로운 따오기'라는, (나)의 화자는 자연에서 '보라매'라는 고결한 성격의 상징물들과 교감하는 모습에서 예찬의 대상이 되는 자연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의 화자가 '붉은 난간'에서 '돌길'을 거쳐 '이끼 낀 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의 화자가 '임천'에서 풍족한 일상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자연은 관찰의 대상으로 묘사되는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